第一十三號 (4288,10,13) 可認物郵便郵第三種

補欠立候補副統領 白性郁氏 總長

（白性郁）

▲副統領に立候補の白性郁氏

▲我等は文教部の方針を支持する

▲我等は文教部の方針を支持する

▲我等は文教部の方針を支持する

(書評)

金成煊敎授著 「近代西洋政治史」 閔丙台

現代 歷史學의發展은 이미 斯學으로 하여금 年代的 事實의 羅列만 許容치 않는다 同時에 「토리비우스」의 「로마」史와같이 敎訓을 目的으로 하는것도 아니다 이러한 敎訓을 가지고 事實을 客觀的 立場으로 批判하며 土臺에서 體系를 構成하는데 注力한다 이것이 現代歷史學은 모든 學問에서 取扱하는 問題

이와 政治學에서 取扱하는 政治問題는 어떠한 差異가 있을것인가 勿論 取扱되는 事實은 同一하다 그러나 政治史는 政治 機構와 權力 組織을 通하여 作用하는 事實및 政鄕의 推移는 社會의 重要한 把握하여 權力 關係로 政治 現象은 物理的勢力 支配 被支配의 現象이 아니다 社會의 重要한 制度가 支配의 基礎이 되는 政治 權力에 依하여 決定되는 政治現象은 支配 被支配 關係로 成立되는 政治 權力의 作用이

入學餘感

國文科一年 崔仁洙

「후욱! 야! 이렇게 숨이 차서야 어디…」

入學試驗을 치르는날 東國大學校의 운동원과 응원대로 꽹꼬리와 밤송이 떨어지는 밤송이 떨어지는 「어쩔던 생야」

「이러니 저러니 育大會에서 優勝을 갈려는 모양이지?」

숨이 차서 헐떡 헐떡하던서도 이런 얘기를 지꺼렸다 試驗을 치다는것 때하는 「길」이 아니라

「길」이 아니라 문에 벌써 學校같은 「길」이 아니라 문에 情이 들어버린 우리를 이어놨다 다른 어느것에 보내는 것이 있기에 더우 「길」이 아니라 가까워진 「길」이었다

「길」을 밟아야 할까지 울 「길」이 아니라 길이 아니라 길이 아니라 길

文化의 諸問題

文化의 定義

T·S·엘리옷

①

一、文化의定義(一九四八年)

文化라는 말은우리가 마음속에 個人的인集團的인 發展을 가지느냐 혹은 階級的인 社會의 發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美한 調和를 가진다. 個人의 文化는 集團혹은 階級의 文化에 달려있다는 것과 또集團과 階級의 文化는 集團과 계급이 屬해있는 全體的 社會의 文化에 달려있다는 것이 나의 論點의 一面이다.

우리는 生活樣式 即 物市生活의 修正을 生 體할것이다. 萬若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知的 이란 말이 지금은자주 쓰여지지않는 事實은認識하면서 또많은사람들이 知性의힘을 크게생각지않는다는 것은解 하면서) 혹은우리는(藝術)을 생각할것이다그러면 우리는藝術家와愛 好家와 趣味者를 區別한다 그러나 우리가이 마음속에 갖고있는 것은 同時에 이제껏 말한 그全部일때도있다 例를들면 우리는敎養 아—놀드의敎 人에對한 述에서 그러진 人物이 나 音樂의 理解를맞치 찾는수가있다 아직것아 무도 그러려知識이文化 의一面을 否認지못할것이 다 萬若 우리가先祖들 의文節속에 적혀있는 文化의 興味活動을살펴 본다면 우리는 한것은 除外하고 그興味活動의 어느 活動에있어서도 아무런 完全性도 文化 를누구에게도부與치않았 다는것은 結論지을수가 있다 우리는 敎育知性이 혹은 藝術의 感受性이 없이도 좋은 自動作用으로 純粹 生活樣式 (哲學)을—即趣味와專 門的인理念을熟考할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知的 이다 그러면 우리는藝術家와愛 好家와 趣味者를 區別 한다 그러나 우리가이 마음속에 갖고있는 것은 同時에 이제껏 말한 그全部일때도있다 例를들면 우리는敎養 아—놀드의敎養이 있는 人에對한 述에서 그러진 人物이 나 音樂의 理解를맞치 찾는수가있다 아직것아 무도 그러려知識이文化 의一面을 否認지못할것이 다 萬若 우리가先祖들 의文節속에 적혀있는 文化의 興味活動을살펴 본다면 우리는 한것은 除外하고 그興味活動의 어느 活動에있어서도 아무런 完全性도 文化 를누구에게도부與치않았 다는것은 結論지을수가 있다 우리는 敎育知性이 혹은 藝術의 感受性이 없이도 좋은 自動作用으로 純粹 生活樣式 (哲學)을—即趣味와專 門的인理念을熟考할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知的 이란 말이 지금은자주 쓰여지지않는 事實은認識하면서 또많은사람들이 知性의힘을 크게생각지않는다는 것은解 하면서) 혹은우리는(藝術)을 생각할것이다그러면 우리는藝術家와愛 好家와 趣味者를 區別한다 그러나 우리가이 마음속에 갖고있는 것은 同時에 이제껏 말한 그全部일때도있다 例를들면 우리는敎養 아—놀드의敎養이 있는 人에對한 述에서 그러진 人物이 나 音樂의 理解를맞치 찾는수가있다 아직것아 무도 그러려知識이文化 의一面을 否認지못할것이 다 萬若 우리가先祖들 의文節속에 적혀있는 文化의 興味活動을살펴 본다면 우리는 한것은 除外하고 그興味活動의 어느 活動에있어서도 아무런 完全性도 文化 를누구에게도부與치않았 다는것은 結論지을수가 있다 우리는 敎育知性이 혹은 藝術의 感受性이 없이도 좋은 自動作用으로 純粹 生活樣式 (哲學)을—即趣味와專 門的인理念을熟考할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知的 이란 말이 지금은자주 쓰여지지않는 事實은認